


그룹 JYJ의 무대는 한국에서 지구 정반대에 위치한 나라 칠레의 케이팝 팬들을 열광시키기에 충분했다. 사진은 열정적인 공연을 펼치고 있는 JYJ의 재중, 유천, 준수(왼쪽부터). 사진제공 | 씨제스엔터테인먼트

# 열정의 남미팬 "JYJ, 미 이히토 리코!"

〈우리 예쁜 아기〉

## JYJ 첫 칠레 공연 현장

### 3000여명 뜨거운 환호…함께 열창도
### 한글 피켓·함성…한국 콘서트 연상
### JYJ "13개 도시 공연중 가장 열정적"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 곳. 비행거리만 약 2만km, 비행시간은 무려 25시간. 지구 정반대에 있는 나라 남미의 칠레에서 발견한 케이팝의 열기는 너무 뜨거웠다.

10일 오전 9시(이하 한국시각) 그룹 JYJ가 산티아고의 테아트로 콘포리칸에서 한국 가수의 단독 콘서트로는 처음으로 남미 무대에 올랐다.

이날 산티아고의 공연장 테아트로 콘포리칸을 울린 3000여 청중의 환호 '미 이히토 리코'(Mi Hijito Rico·우리 예쁜 아기)나 공연장 앞에서 만난 노숙 팬, 그리고 새벽 4시까지 기다리던 열정 등 남미 칠레에서 발견한 케이팝에 대한 사랑은 예상을 뛰어넘었다. 이런 느낌은 JYJ도 마찬가지였다. JYJ 관계자들은 "작년 4월 태국 방콕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등지의 13개 도시에서 공연했지만, 칠레 팬들이 가장 뜨거웠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공연에서 JYJ는 '엠프티'로 무대를 시작해 '피에로' '에이 걸' 등 총 14곡을 불렀다. 관객들은 한국어로 "사랑해, 사랑해"를 외쳤고, JYJ의 '찾았다' '인 헤븐' 등의 무대 때는 한국어 가사를 그대로 따라 불렀다. '사랑해요 오빠' '함께 가면 길이 된대' 등 JYJ를 응원하는 한글 피켓, 고막을 찢을 듯한 함성은 한국 콘서트 현장 그대로였다.




▲ "JYJ가 최고!" 칠레의 한 팬(가운데)이 Xiah(준수)를 가리키는 하트 모양의 종이를 들고 환호하고 있다.



◀ 열성팬 "4일째 노숙"
JYJ 공연을 24시간 앞둔 8일 밤, 콘서트가 열린 산티아고 도심의 실내 체육관 테아트로 콘포리칸에서 만난 케이팝 팬들. 조금이라도 가까운 스탠딩 자리를 얻으려고 약 150명의 팬이 패딩 점퍼에 침낭과 담요 등을 덮고 노숙하고 있다. 한 팬은 무려 4일째 노숙하고 있다. 그는 "공항으로 입국하는 JYJ를 보러갈 때는 자리를 뺏길까 봐 사촌동생에게 맡겼다"고 남다른 애정을 과시했다.
사진제공 | 씨제스엔터테인먼트

### ●칠레, 남미한류의 허브국가로 급성장

10년 전부터 한류 붐이 일어난 멕시코나 페루에 비하면, 2010년 본격적으로 한류 팬들이 생긴 칠레는 규모가 작다. 그러나 칠레는 인터넷의 빠른 성장을 기반으로 남미 한류의 허브로 자리잡고 있다.

재칠레한국한글학교 남도우(47) 교장은 "남미국가 중 인터넷이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한 나라여서 문화 전파가 매우 빠르다"고 칠레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했다. 주칠레 한국대사관의 김선태 참사관도 "칠레의 케이팝 팬을 3만 명으로 보고 있다. 절대 잠깐 반짝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 미국 팝음악처럼 케이팝은 남미에서 많이 자리 잡았다"고 소개했다.

이날 공연 현장에서 만난 여고생 사무엘 아쿠나(18)는 "우리 반의 대부분이 케이팝을 안다. 절반 정도는 가끔 듣는 정도지만 열정적인 케이팝 팬도 꽤 있다"며 "케이팝은 듣기만 해도 좋지만 퍼포먼스가 더해지면 더욱 환상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를 듣기도, 따라하기도, 커버댄스도 한다"고 열기를 전했다.

### ●"아직 정품CD 없어, 정상가 10배 400달러에 음반 구해"

케이팝의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그것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 칠레 지상파 방송인 메가TV의 폴리나 세이페다 기자는 "아직 케이팝의 정품 CD가 유통되지 않아 인터넷으로 정상가의 10배인 300~400달러를 내고 사야 한다"고 실상을 소개했다.

또한 세이페다 기자는 "케이팝은 이제 일반 사람들도 듣기 시작했다"며 "SNS를 활용해 해외 팬들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티아고(칠레) |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트위터@ziodadi

## 흥분 관객 4명 실신…한국기자 덩달아 인기 '볼키스 세례'

### JYJ공연 이모저모

○…JYJ의 이번 공연에서 네 명의 관객이 실신했다. 공연 시작 전 분위기가 달아오를 때 한 명이 쓰러져 실려 나간 후, 공연의 마지막 곡 '인 헤븐'까지 모두 세 명이 더 실신해 실려 나갔다.

○…칠레 공연이 열린 산티아고의 테아트로 콘포리칸은 100년이 넘은 유서 깊은 곳으로, 최근엔 미국의 메탈밴드 콘과 일본 록밴드 엑스재팬의 공연이 열렸다. 이번 입장권 가격은 최고 7만 페소(16만 원)에서 최저 2만 페소(4만8000원). 칠레의 법정최저임금이 50만원대임을 감안하면 10대 청소년들에겐 다소 부담되는 가격이다.

○…케이팝의 인기로 현장을 취재한 한국 기자들도 덩달아 높은 인기를 실감했다. 공연 후 감격에 겨워하던 일부 여성 팬들은 눈에 보이는 한국기자들을 붙잡고 '볼키스'를 하고 대담한 포즈로 사진촬영을 하는 등 남미 특유의 열정을 드러냈다.

산티아고(칠레) | 김원겸 기자

편집 | 최혜경 기자 hk7048@donga.com 트위터@hk7048





(광고)
종신보험, 암보험,
의료실비보험, 연금보험…
하나로 준비 끝!

하나의 상품으로 종신보험, 암보험, 의료실비보험, 연금보험을 한꺼번에 준비할 수 있는 상품인 (무)교보하나로유니버셜종신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 상품은 합리적인 보험료로 종신 보장은 물론 특약으로 암, 의료비에 대한 보장이 가능하며 연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불안한 경제 상황 속에서 미래에 대한 준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면 이 상품에 대해 무료전화를 통해 부담 없이 상담할 수 있다.(080-399-0099/www.directlife.com)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보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 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2-110호(2012.1.27)




## 슈주 마카오 공연 전석매진 성황

그룹 슈퍼주니어가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에 이어 마카오 공연도 성공적으로 마쳤다. 슈퍼주니어는 9~10일 양일간 마카오 베네시안 호텔 내 코타이 아레나에서 슈퍼주니어 월드 투어 '슈퍼쇼 4 인 마카오' 공연을 열었다(사진). 마카오에서 열린 슈퍼주니어의 첫 단독 콘서트인 이번 공연은 전석매진을 기록했고, 현지 팬들의 뜨거운 반응으로 1회 공연을 추가했다. 김민정 기자






## 스타 온라인

### 히터 꼬는 투애니원 공민지… 무결점 S라인



걸그룹 투애니원의 멤버 공민지가 S라인 몸매 사진을 공개했다. 9일 공민지는 트위터(@mingkki21)에 "슬리퍼신고 히터 꼬는 사이보그, Scream MV촬영 대기하다가 찰칵!"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올렸다. 공민지는 몸매가 드러나는 타이트한 옷을 입고 S라인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게 진짜 S라인이지!" "점점 섹시한 모습을 보여 주네요" "민지 언니 몸매 너무 부러워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최효종 "유재석 선배님이 주신 운동화~"



개그맨 최효종이 유재석에게 선물로 받은 운동화 인증샷을 공개했다. 최효종은 10일 트위터(@hyojong66)에 "유재석 선배님이 오늘 선물로 주신 운동화~~~^^ 늘 녹화때면 따뜻한 정을 느끼고 돌아간다~~~^^ 선배님 감사합니다~~~"라는 글과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사진에서 최효종은 KBS 2TV '해피투게더3'의 목욕탕 가운을 입고 빨간색 운동화를 보여주며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저도 유재석씨의 따뜻한 정을 느껴보고 싶네요" "유재석은 신발 고르는 센스도 최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연예뉴스 스테이션

### 빅뱅, 미니앨범 '블루'로 SBS 인기가요 1위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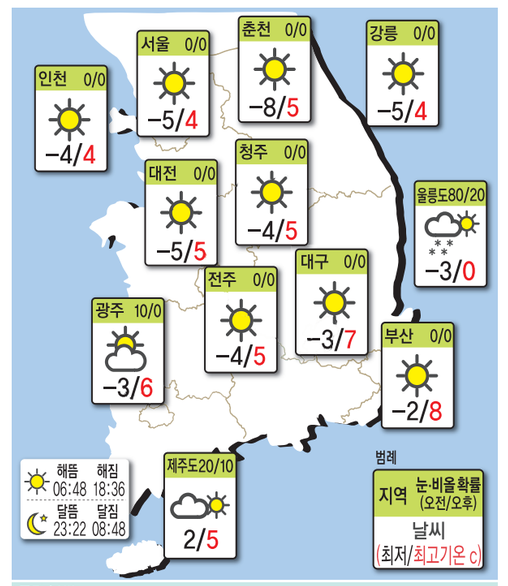
그룹 빅뱅이 컴백과 동시에 각종 음악순위 프로그램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빅뱅은 11일 방송된 SBS '인기가요'에서 미니 앨범 5집 '블루'로 1위에 해당하는 네티즌송을 수상했다. 빅뱅은 8일 케이블·위성 채널 엠넷의 '엠카운트다운'과 9일 KBS 2TV '뮤직뱅크'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 김민희 '화차' 주말 박스오피스 1위

영화 '화차'(감독 변영주)가 주말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11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화차'는 10일 하루 26만5150명의 관객을 모았다. 누적관객은 44만8432명. '화차'는 사라진 약혼녀 선영(김민희)을 찾아 나선 남자(이선균)와 전직 형사(조성하)가 선영의 모든 것이 가짜였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벌어지는 미스터리를 다룬 작품이다.

## 오늘의 날씨

3월 12일 월요일 (음력 2월 20일)




| 주간 날씨 (최저/최고기온 c) | 서울/경기 | 영동 | 충청 | 호남 | 영남 | 제주 |
|---|---|---|---|---|---|---|
| 13일(화) | -3/6 | -5/8 | -4/8 | -3/10 | -2/9 | 2/9 |
| 14일(수) | 1/10 | -1/9 | -1/11 | 1/11 | 0/12 | 2/13 |
| 15일(목) | 2/12 | 0/11 | 2/13 | 3/13 | 3/13 | 8/12 |


스포츠동아
광고문의 02 2020 1010
구독신청 1588 2020
FAX 02 2020 1015
www.sportsdonga.com
(우)110-7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발행인 송대근
편집인
인쇄인 최맹호
편집국장 이성춘
광고국장 이승욱

대표전화 02 2020 0114
편집부 02 2020 1039
스포츠1부 02 2020 1052
스포츠2부 02 2020 1051
엔터테인먼트부 02 2020 1061
사진부 02 2020 1068